

시로 읽는 성보순례

국보 제40호 정혜사지심삼층석탑



땅의 별자리들

전 동균

웃기 당정히 여민  
밤이 와 섰어라

바람은  
바람 아래 놀고, 상류로 돌아가듯  
독락정 물소리  
가만가만 흐르고

절 없는 절터가 품은  
별자리들,  
손 시린 하늘의 안내를 받아  
서쪽으로 걸어가는  
땅의 별자리들.

저마다 슬픔과 기쁨에 젖어  
하나면서 여럿인  
얼굴들 바라보느라

눈이 다 타버린

온종일

〈국보사랑 시집-불멸이여 순결한 가슴이여〉 중에서

전동균 시인은... 1962년 경주 출생. 1986년 〈소설문학〉으로 등단. 시집 〈할허동천에 서성이다〉, 〈거룩한 허가〉등.

# ‘자비나눔’으로 하나 된 부처님오신날

## 불교계, 봉축 맞이 자비행 ‘다채’

불기 2556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다문화 가정, 암환우 등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을 위한 ‘자비나눔’ 행사가 다채롭게 열렸다.

천태종(총무원장 대행 무원)은 부처님오신날인 5월 28일 종본산 구인사에서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등 국내 종교 지도자들과 다문화 가족 등이 참석해 간담회를 열었다.

‘구인사 가는 길에서 만난 아름다운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백도웅 목사(개신교), 주낙길 수사(천주교), 김대선 교무(원불교 문화사회부장) 등 이웃종교인들과 다문화 가족 등 200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날 단양 지역 30~40대의 젊은 불자 모임인 ‘아단법석’은 다문화 가족들에게 지원금과 생필품 등을 전달하고 이들을 격려했으며, 다문화 가정 어린이로 구성된 ‘데인보우 합창단’은 참가자들에게 아름다운 음성공양을 들려줬다.

천태종 총무원장직무대행 무원 스님은 “다문화, 다종교 사회로 접어들면서 서로 적대하고 종교적 갈등이 생기고 있다”며 “이럴 때 성직자들이 서로 존중받는 종교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또 무원 스님은 “종교 간 대화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면서 “일반인들이 살아가면서 서로 다른 시각에서 서로 다른 견해를 얘기할 수 있는 것

이 종교 간 대화”라고 밝혔다.

수행공동체 정토회(지도법사 범륜)는 이웃종교인·사회인사와 함께하는 부처님오신날을 봉행했다. 5월 28일 서초구 서초동에서 봉행된 법회는 △‘종정법어’ 낭독 및 인사말 △종교인과 사회인사의 헌동·헌화·육불의식 △종교인과 인디밴드의 축하공연 및 국악인 김영동씨 연주회 등이

### 천태종 다문화 가족 초청 법회

### 이웃 종교와 함께 봉축 법회

### 암환자 위한 나눔 행사도

펼쳐졌다.

이번 봉축법회에는 김홍진 (천주교 쑤고개 성당 주임신부), 인명진(갈릴리교회 담임목사), 박경조(전 대한성공회 서울대교구장), 박남수(동학민족통일회 상임의장)를 포함한 120여 명의 종교·사회인사가 참가했다.

특히, 김홍진 신부와 인명진 목사는 ‘세상을 밝게 하는 종교인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기념법문을 해 눈길을 끌었다. 정토회는 “이웃종교인과 사회인사와 함께 부처님의 탄생 그리고 참뜻을 세우는 기념 봉축법회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로 종교간 화합과 종교인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다



한국 원자력 병원 영산법당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암 환우를 위한 자비나눔행사를 개최했다. 사진은 행사 일환으로 진행된 뉴트리팍스 오케스트라의 작은 치유 음악회.

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됐다”고 전했다.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폭력과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행사도 열렸다. 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주지 성문)와 대구불교총연합회는 학교폭력과 자살예방을 위한 ‘조이플콘서트’를 개최했다.

무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KBS게그콘서트 팀이 총 출연해 인기코너를 선보였으며, ‘K-팝스타’에서 높은 인기를 얻은 이미엘 이건우 등이 특별 출연해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꿈을 선사했다.

암 환우들을 위한 자비나눔행사도 열렸다. 조계종 영산선원이 운영하는 한국 원

자력병원 영산법당(주지 여행)은 ‘부처님오신날 맞이 행복 더하기 자비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자비나눔 행사에서는 입원·외래 환자, 직원 등 약 2천여 명에게 뽕잎차, 각종 떡과 손지갑, 비누, 마스크팩 등을 보냈다. 또 환우들을 위한 뉴트리팍스 오케스트라의 작은 치유 음악회를 열기도 했다.

주지 여행 스님은 “어려운 곳을 향한 관심과 손길은 나눌수록 더욱 커진다. 이것이 부처님의 자비행”이라며 “이번 행사로 병마와 싸우는 환우들에게 마음의 안정과 삶의 희망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신종일·정혜숙 기자

## 제10회 대원상 후보 공모

진흥원, 9월 3~20일 접수

한국불교 대중화와 생활화, 현대화에 높은 기여를 한 스님과 불자 단체들을 발굴하는 대원상 후보를 추천받는다.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김규철)은 오는 9월 3일부터 20일까지 제10회 대원상 후보를 공모한다고 5월 30일 밝혔다.

현대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포교방법을 발굴, 장려하기 위한 대원상은 포교 부문과 콘텐츠 부문을 대상으로 시상한다. 상금 총액 5천만원을 수여하는 포교대상은

불교의 현대화에 기여한 스님 및 재가불자, 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콘텐츠대상은 불교적 소재의 스토리텔링, 다큐멘터리, 드라마, 다큐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인포테인먼트, 작곡, 공연, 전시 등 관련 분야 작품이 대상이며 총 5천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대상자는 진흥원 홈페이지(www.kbpf.org)에서 소정양식을 내려 받아 9월3~20일 우편 또는 직접방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02)719-2606

신종일 기자

### 〈바로 잡습니다〉

5월 30일자 890호 대행선사 추모특집 8면의 국내지원장 스님 명단 중 통영지원장 혜연 스님을 혜연 스님으로 바로 잡습니다. 혜연, 혜진 스님께 심심한 사과를 올립니다.

## “한국불교를 만난 것, 특별한 기회”

페르난도 파라과이 대통령, 자승 스님 예방

빈민 운동가이자 전직 카톨릭 주교였던 페르난도 루고 파라과이 대통령이 5월 27일 조계종을 찾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했다.

이날 자승 스님은 “바쁜 방한 일정에도 조계종을 방문해줘 감사하다. 한국사회에는 50여 개의 종교와 5백여 종파가 있으나 큰 다름없이 종교간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기회가 된다면 템플스테이 등을 체험해보길 권한다”고 밝혔다.

페르난도 대통령은 “조계종을 방문해 스님들을 보니 우리가 종교는 다르나 인연 가는 한 자리에 다시 만날 거라 생각한다”며 “저에게 이렇게 특별한 기회가 찾아 온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종교간 다름은 멀리 보지 못하는 까닭에 있다. 서로 힘이 될 수 있도록 도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스님이 페르난도 루고 파라과이 대통령에게 향료를 전달하고 있다.

와야 한다. 주님과 부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 LEADER



## 국제 선 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중생구제 인간방생으로 세계와 한국 속에 자랑스런 종단!

12 인연법을 중시 여기며 화합과 단결과 품앗이로 서로 돕는 종단!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밝힐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큰 종단, 큰 절, 각 종단을 이끄는 스님들이 불교 지도자들이십니다. 그러나 비록 조그마한 암자나 토굴, 인법당을 운영하는 스님, 포교당을 운영하는 이름 없는 스님일지라도 포교일선에서 그늘진 곳, 손길을 기다리는 곳에서 땀 흘리는 불계자, 중생교화, 인간 방생을 몸소 실천하는 스님들, 재가 법사, 불자님들 또한 진정한 불교 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입니다. 이토록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고자 하는 뜻을 함께 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사찰 및 스님들의 종단 가입을 받습니다. 마음과 몸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한 인간방생을 실천하는 사찰과 스님들의 가입으로 작지만 알차고 자랑스런 부처님을 감동 시키는 종단을 만들고자 합니다.

모두 동참합시다! 모집시다!

사찰등록! 지금 바로 하십시오.

개인의 명예나 대우받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욕심없이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는 보살행을 행하는 참 불자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종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불교 최초로 우리 종단만이 입을 수 있는 승복 및 수자보(스님가방), 장삼, 가사까지 갖추어진 종단입니다.

종교법인 국제 선 불교 조계종

목적 혜은

대표전화번호 : 02)733-5665

남·여 행자(에비스님) 모집